
저자 (Authors)	이용길
출처 (Source)	월간 공공정책 178 , 2020.8, 26-29 (4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자치학회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415773
APA Style	이용길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에 대한 사유 ^思 惟. 월간 공공정책, 178, 26-29.
이용정보 (Accessed)	충남대학교 168.***.11.31 2021/04/08 01:1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에 대한 사유^{思惟}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당황한 교육

팬데믹은 새로운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가 설정한 팬데믹 기준은 강력한 전염성, 사람 대 사람 간 전염, 동일한 전염병이 2개 대륙 이상에서 발생할 것 등이다. 역사의 기록으로 20세기 이후 가장 심각했던 팬데믹은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당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5억 명 인구가 감염됐으며 사망자만 5천만 명에 달했다.

일제 식민지였던 한국에서는 무오년 독감^{戊午年 毒感} 또는 서반아 감기^{西班牙 感冒}라고 불렀다. 한국 인구 1천759만 명 가운데 약 16.3%인 288만 4천000명이 스페인 독감 환자가 됐고, 그중 14만 명이 사망했다. 사망률은 전체 인구수 대비 0.8%다(조선총독부 통계, 1918). 이후, 10여 년 전인 2009년 팬데믹은 신종인플루엔자 때로, 당시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질병에 감염돼 사망했다. 한국은 이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냈다. 이러한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회적 공포의 불편함은 있었지만 이로 인해 특별히 교육에 대한 변화와 영향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은 이전의 팬데믹 현상보다는 더욱 사람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일상이 코로나-19로 인해 흔들리면서 불과 6개월 만에 경기침체를 가져와 금융시장, 관광산업, 국가 간 수출·수입 등이 영향을 받으면서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생존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생존의 문제는 곧 교육과 직결된다.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토대가 교육에 있는 것이고 보면 전 대미문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의 출현으로 흔들리



코로나 사태의 위기 이어져도
방역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방역이 돼야



는 삶은 교육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교육의 기본 틀이 무너지고 있다. 인류의 출현부터 교육의 공리^{公理}는 스승과 제자, 선생과 학생의 교수자와 학습자의 대면 관계가 기본 바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부동의 대면 관계를 전제로 교육을 생각했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비대면 교육’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비대면 교육이라는 말은 사실 기존의 교육개념망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말이다. 접촉으로 감염되는 것이라 교육적 접촉을 꺼리며 학교들은 개학 연기나 휴교를 하고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을 하는 등 교육이 당황하고 있다.

당황한 교육이 합리화하는 것은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이 4차 산업혁명의 가속적인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라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백가쟁명^{百家爭鳴}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적용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즉, 교육 분야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이 가속화돼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고유의 교육기초 능력이었던 읽고(reading), 쓰고(writing), 셈하기(arithmetic)처럼, 디지털 리터러시

(digital literacy)로서 디지털 기술·데이터·정보·콘텐츠·미디어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 관리, 통합, 분석, 평가, 해결, 소통하며,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소양을 길러야 한다고 한다.

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미디어와 기술 발달을 통한 사회 참여의 기반을 전제로 그에 대한 윤리와 실제 적응능력 여부를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활용의 적절성, 자기계발 활용 여부, 자기 통제와 절제 등 자기관리, 정보와 지식 나눔, 디지털의 공익^{公益}적이며 이타^{利他}적인 사용 등 개인적 태도와 사회적 태도를 강조한다(디지털리터러시 교육협회, 2020). 이것은 교육이 한 사람의 인격을 완성하고, 그 성숙된 인격으로 더불어 사는 관계적 존재인 사회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교육의 본연을 4차 산업혁명의 주류인 디지털 문화 안에 가두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예컨대, 전기 공급이 안 된다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과 구성과 그 판단은 말짱 허사가 되고 만다. 그러나 이마저도 코로나-19 사태의 급습에 당황한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자랑하는 국민이 학생들과 자녀들의 교육결손만은 방지해야 한다는 교육적 의지의 임시방편적인 대처였다.

방역을 위한 교육인가, 교육을 위한 방역인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현재 감염자가 전 세계적으로 1천7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7월 31일 기준), 이중 치사율은 4%대이다. 감염과 사망의 상황이 앞으로 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야말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공황상태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명사가 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 AI)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물론,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과 전파방식, 잠복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으나 맥 빠진 소리로 들린다. 아직은 인간이 손수 써야 하는 마스크가 코로나의 백신이고, 홀로가 아닌 서로의 관계에서 거리 두기가 코로나 치료제라는 1차 산업사회적



비대면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에도 기본적, 본질적 소양에 대한 교육은 대면을 통해 이뤄질 수 있어



인 방역이 대안일 뿐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일종의 생명체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인간에게 감염되기 때문에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도 인간생물체에 맞는 유전자적 항체가 발견되고 생성되어야 한다. 이 일은 사람에게 의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축적된 임상적 경험들을 인공지능이 학습해 빅 데이터를 읽어내야 가능하다. 그런데 아직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대한 임상적 경험들이 축적되지 않았으니 인공지능에 너무 기대를 거는 것이 선부르지 않나 싶다. 아직 인공지능이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할 수 없고, 금방 변하는 상황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을 인공로봇이 생각해낼 수 없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다.

지금의 교육은 코로나-19에 대한 당황에서 공포를 느끼고 있다. 코로나의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코로나 방역만을 위한 교육체제로 돌입한다. 교실은 거리를 두어 책상을 배치해 학교 군집성의 사회적 친밀감을 차단하며, 정답게 마주하며 하는 학교 급식도 거리를 두고 한 방향으로만 보게 한다. 확진자나 의심자가 나오면 지체 없이 휴교하고, 비대면 원격 수업은 지식만 전달할 뿐, 그 지식마저도 제대로 전달됐는지 알 수도 없는 채, 학생의 성실성·근면성·자율성·책임감 등의 태도를 길러주지 못하고 평가할 수도 없다.

코로나-19에 대한 교육의 무의식적 공포는 지식의 전달만을 교육이라고 여겨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교육이 정당화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은 학습 중심의 교육이 돼야 한다는 교육적이지 못한 언사들을 쏟아 내고 있



학교를 넘어 지역공동체 차원의 다양한 주변의 이웃을 통한 실천적이고 창조적 교육 이뤄져야



다. 그러나 원격교육을 두고 교사가 아무 하는 일 없이 월급만 받아먹는다는 어느 지자체 교육감의 어이없는 말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교육이었음을 반증해 준다.

교육을 위한 코로나-19 방역도 있다. 학부모들의 반발과 학생들의 불만에 직면하면서도, 교육 실정에 맞게 방역 수칙을 스스로 마련하고, 소집단 수업을 조직해, 출석 수업과 재택 학습과 원격 교수-학습을 병행해 분단별로 각자의 창조적 역량을 발휘하는 토론수업을 하는 등 학생들의 수업만족도가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향상된 사례가 있다. 즉, 교육을 위한 코로나 방역이 되어 한다.

코로나-19의 발생은 자연의 순리를 넘어서는 감염병 재해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역(易)」의 논리로 보면 코로나-19 사태는 박(剝; ䷖)괘의 현상이다. 박(剝)괘를 코로나-19에 비유해서 말하면, 모두 코로나-19가 음성인 반면 맨 위의 한 효(爻)만 양성이다.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와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성반응을 음성반응으로 바꿔 코로나-19의 힘을 박탈(剝奪)시켜야 한다. 이것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이며 교육자의 역할이다. 코로나-19 양성반응의 힘을 박탈시키면 천지(天地)가 만물을 생성하는 것과 같이 인간 삶이 바른 섭리로 움직이는 복(復; ䷗)괘의 현상으로 돌아온다.

자연의 순리와 인간 삶의 섭리가 제대로 변화돼야 한다. 그것은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다.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이든, 디지털 리터러시가든 간에 자연의 순리와 인간 섭리의 안에서 교육에 적용돼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임시 대처로써 교육이라면 코로나-19는 극복할 수 없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코로나-19 시대 이후의 교육이 성공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대세의 흐름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가속화하는 터닝 포인트가 됐다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코로나-19 시대 이후의 교육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이다. 디지털에 의한 원격 학습이 주류를 이룰 것이고, 디지털 문해를 위한 교육이 중점을 둘 것이다. 읽고 쓰고 셈하는 일에서부터 글쓰기, 작품 구상과 생산에까지 인공지능과 로봇 기체가 대신하는 세상으로 전망된다. 사람은 생각할 일이 없어진다.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에너지 자원인 전력(電力)을 3시간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가정해보자.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원격 화상으로만 만나는 남녀의 사랑이 지속될 수 없는 일이고, 원격교육으로만 축구게임을 훈련할 수는 없다. 인공지능으로 야구팀을 만든들 그 시합이 언제 끝날지 모를 일이다. 기계로 조각상을 깎아봐도 작가의 개성이 드러날 수 없으며, 도자기가 빚어져도 부족한 여백의 미가 없을 것이고, 그림이 그려져도 작가의 정신을 담아낼 수 없다. 사람의 삶에서 사람이 없어진다. 그래서 사람이 기계 인간의 노예가 되고 지구에서 쫓겨나 로봇들과 전쟁을 하는 공상(空想) 과학영화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교육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 대상이 개인이든 사회이든 지식을 기능과 실천으로 바꾸어 인성적이고 전문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데서 최종 완성된다. 단순하게 배우는 사람에게 지식이 전달됐다고 해서 교육이 아니다.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의 성과물들도 이와 같은 교육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이 무서운 감염병을 방어하는 데 급급해지는 교육이라기보다는 극복해 이겨내는 교육을 해야 인류가 생존

할 수 있다.

사람 중심의 교육이 돼야 한다. 인구가 줄어들고 전통적인 학교의 기능이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고 해도 교육은 사람과 대면하면서 이뤄져야 한다. 디지털 기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미래 세대에게 어른세대는 모두 교사가 돼야 한다. 입시를 위한 교육만이 교육이 아니라는 관념적 구두선(口頭禪)에 그치지 말고, 각 지역적 특성의 삶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생존의 풍요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유치원 때부터 죽자 살자 대학입학시험을 염두에 두는 주입식 교육에 매몰되면 반드시 창조적 역량만이 살아남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할 수 없다.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지역에서 살아가야 할 기초적 경험 실천교육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창조적 능력을 개발해 가치를 창조하는 교육이 된다. 그리하여 자신의 취향과 능력에 따라 발전시킬 분야를 선택해 전문가, 예술가, 학자 등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교육공동체가 조장해 준다. 여기에 4차 산업의 뛰어난 역량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 사회 어른들은 자기가 종사하는 분야에서 모두 도제 제도적인 교사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에 대한 정책은 지금 시작해야 한다. 국가는 각 지방정부와 지자체 교육 당국이 주민과 협력해 지역 교육공동체를 구상하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하고 정책과 의제를 생성해야 한다. 교육은 백 년을 보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백년대계(百年大計)이기 때문에 한 세대가 늦어지면 미래 교육이 백 년 늦어진다. 코로나-19의 팬데믹 공포 같은 경쟁교육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각자의 창조성을 발휘해 창조적 역량을 지니는 창조적 인간교육의 도량을 만들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시대는 창조교육만이 살아남기 때문이다.

사람중심의 창조교육이 교육의 본질이다

인간의 본성은 창조성(創造性)이다. 지식과 기술의 디지털적

창조적 융합은 인간의 창조성이 발휘된 창조적 역량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이것이 창조교육이다. 창조교육의 요체는 창조성으로서 사람의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19의 미래 교육은 '생각하는 힘'에 의한 융합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창조적 능력을 개발해 역량을 갖추게 하는 창조교육이다. 창조교육은 사람을 사랑해 관심과 이해와 배려와 존중하는 사람 중심의 교육적 사유(思惟)에서 출발한다. 창조성의 본질은 사랑이다.

미래의 창조교육은 새로운 융합의 역량을 창조하는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창조적 인재는 '생각하는 힘'에 의해 가치를 창조하는 다양성을 갖춘 전문가이다.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창조교육은 창조적 사고 과정으로서 발상(發想)-발견(發見)-발굴(發掘)-발현(發顯)-발전(發展)의 5단계 교육방법을 갖고 있다.

발상단계는 '생각하는 힘'이 시작되는 상상으로 독창적인 '생각하는 힘'의 출발이다. 발견단계는 창조적 특성이 윤곽을 형성해 '생각하는 힘'이 드러나는 것이다. 발굴단계는 '생각하는 힘'이 합리적이고 계통적인 구상으로 모이는 것이다. 발현단계는 '생각하는 힘'이 의미 있는 내용으로 완성돼 가는 것이다. 발전단계는 '생각하는 힘'이 완성돼 독창적이고 창조적 역량이 발휘돼 가치 창조를 이루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어떤 분야를 가르치고 배우건 간에 미래의 교육은 창조교육에 의해서만이 인류의 무한한 발전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이용길

교육학 박사로 군장대학교 청소년교육지도과 교수이다. 2017~2018년 한국교육학회 기획조직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사단법인 창조교육학회 이사장, 한국교육철학회 이사, 한국교육사학회 이사, 학창교육연구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